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① 하위계층은 보수를 지지하는가?

일시 : 2014.12.10(수), 07:30~

장소 : 국회본청 귀빈식당

민주정책포럼 Season II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 취지 및 목적

- 4·16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적 요구 확산에 따른 방향 모색 및 학습의 장 마련
- 사회적 양극화와 정치경제적 계층갈등의 현실과 원인 진단, 사라진 중산층 복원,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 및 복지확대 방안 논의

□ 포럼 개요

- 일 정 : 2014.12.10(수)~, 07:30~09:00 [매주 수요일, 총 3회]
- 장 소 : 국회본청 귀빈식당/의원회관 211호실
- 대주제 :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 주 최 : 민주정책연구원
- 참 석 : 당 지도부,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정책위원회 및 당직자

□ 프로그램

일시	분야	주제 및 연사	지정토론	장소
12. 10(수) 07:30~09:00	정치	① 하위계층은 보수를 지지하는가? 강원택(정치외교학부 교수)	김기준 의원 오영식 의원	국회본청 귀빈식당 (1호실)
12. 17(수) 07:30~09:00	사회	② 한국사회,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 이재열(사회학과 교수)	최원식 의원 황주홍 의원	의원회관 8간담회실 (211호)
12. 24(수) 07:30~09:00	복지	③ 한국의 복지국가 어디로 가야 하나? 안상훈(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용익 의원 1인 미정	의원회관 8간담회실 (211호)

민주정책포럼 Season II -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시리즈 ① '하위계층은 보수를 지지하는가?'

□ 개요

- 일 시 : 2014년 12월 10일(수), 07:30 ~ 09:00
- 장 소 : 국회본청 귀빈식당
- 주 최 : 민주정책연구원

□ 강연 주제

- 하위계층은 보수를 지지하는가? - 사회계층과 정치

□ 초청 연사

-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진행 순서

사 회 : 최원식 의원(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시 간	내 용
07:30 ~ 07:45	개 회
07:45 ~ 07:50	인사말 :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07:50 ~ 07:55	축 사 :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07:55 ~ 08:20	강 연 : 강원택 교수
08:20 ~ 08:55	질의 및 답변 : 지정 및 자유토론
08:55 ~ 09:00	폐 회

하위계층은 보수를 지지하는가?

-사회계층과 정치-

강원택(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201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었던 이슈는 바로 계층과 관련된 것
 - ‘사회적 양극화’,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중산층 재건’ 등
 - 2010년 지방선거,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 이미 선거 과정에서 계층 이슈가 유권자의 주목을 끌기 시작함.
 - 한국 사회에서 계층 간 격차가 그만큼 심각해졌음을 보여주는 것
 - 이갑윤, 이지호, 김세걸(2013): 재산의 정도에 따라 계급의식이 형성되고 있다
 - 이용마 (2013):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가 계층 구조의 큰 변화를 겪으면서 신중산 계층의 진보성과 상위 계층의 보수성 확인.
 - 그러나 “계급 배반 투표”? : 저소득층이 보수, 보수 정당지지?

I. 계급 배반 투표

이하 강원택. 2013. “한국 선거에서의 ‘계급 배반 투표’와 사회 계층”. 『한국정당학회보』 . 12권 3호, 5-28.

<표 1> 소득 계층별 2012 대선 투표¹⁾

	박근혜	문재인	기권	합(n)
저소득층	56.3	34.6	9.1	100.0(396)
중소득층	46.1	40.9	13.0	100.0(545)
고소득층	46.2	41.9	11.9	100.0(236)
평균	49.5	39.0	11.5	100.0(1177)
카이제곱 검정	Pearson 카이제곱 11.7 p<0.05			

1) 299 만 원 이하를 저소득층, 300-499 만원을 중간 소득층, 500 만 원 이상을 고소득층으로 분류

<표 2> 계층별 2012년 총선에서의 정당 비례 투표

	새누리	민주	통합진보	기타정당	기권	합(n)
저소득층	50.0	26.6	2.0	2.3	19.1	100.0(346)
중소득층	41.0	28.8	3.0	1.7	25.4	100.0(468)
고소득층	36.5	30.8	5.7	1.4	25.6	100.0(211)
평균	43.1	28.5	3.2	1.9	23.3	100.0(1025)
카이제곱 검정 Pearson 카이제곱 17.6 p<0.05						

<표 3> 계층별 2007년 대선 투표

	이명박+ 이회창	정동영 + 문국현+ 권영 길	기권	합(n)
저소득층	62.9	22.5	14.6	100.0(356)
중소득층	56.8	23.3	20.0	100.0(451)
고소득층	51.8	23.8	24.4	100.0(193)
평균	58.0	23.1	18.9	100.0(1000)
카이제곱 검정 Pearson 카이제곱 9.8 p<0.05				

- 연령과 계층의 중첩으로 인한 착시?

<표 4> 계층의 연령별 분포

	저소득층	중간 소득층	고소득층
19-29	11.9	19.3	25.2
30대	12.9	24.7	23.1
40대	13.9	27.7	23.1
50대	16.6	18.9	23.1
60대 이상	44.7	9.4	5.5
합계 (n)	100.0 (403)	100.0 (555)	100.0 (238)

<표 5> 소득 계층별 대선 투표 (60대 이상 제외)

	박근혜	문재인	기권	합(n)
저소득층	45.2	39.8	14.9	100.0(221)
중소득층	42.7	43.3	14.0	100.0(494)
고소득층	45.7	42.6	11.7	100.0(223)
평균	44.0	42.3	13.6	100.0(938)
카이제곱 검정	Pearson 카이제곱 1.8 p=0.77			

<표 6> 계층별 2012년 총선에서의 정당 비례 투표(60대 이상 제외)

	새누리	민주	통합진보	기타정당	기권	합(n)
저소득층	40.6	25.1	3.7	2.1	28.3	100.0(187)
중소득층	38.0	29.9	3.3	1.4	27.3	100.0(421)
고소득층	35.4	31.8	6.1	1.5	25.3	100.0(198)
평균	38.0	29.3	4.1	1.6	27.0	100.0(806)
카이제곱 검정 Pearson 카이제곱 5.6 p=0.69						

<표 7> 계층별 2007년 대선 투표 (60대 이상 제외)

	이명박+ 이회창	정동영 + 문국현+ 권영 길	기권	합(n)
저소득층	56.2	20.0	23.8	100.0(185)
중소득층	53.7	25.1	21.1	100.0(402)
고소득층	51.1	24.4	24.4	100.0(180)
평균				100.0(1000)
카이제곱 검정 Pearson 카이제곱 2.7 p=0.62				

- 계층에 따른 경제 정책에 대한 태도의 차이

<표 8> 선형 회귀 분석: 주관적 이념성향에 대한 영향

	전체	60대 이상 제외
	비표준화 계수 B	비표준화 계수 B
고소득층	-0.09 (-0.64)	-0.02 (-0.13)
저소득층	0.44 (3.59)*	0.05 (0.34)
안보 이슈 태도	0.23 (7.38)*	0.23 (6.78)*
경제 이슈 태도	0.05 (1.52)	0.06 (1.65)***
사회 이슈 태도	0.07 (2.02)**	0.04 (1.03)
탈물질 이슈 태도	-0.08 (-2.64)*	-0.05 (-1.50)
복지 확대와 증세 태도	0.03 (1.29)	0.02 (1.15)
상수	2.07 (2.89)*	1.89 (2.46)**
	수정된 R ² = 0.12	수정된 R ² = 0.09
n	1,040	836

종속변수: 본인 이념 성향 (0-가장 진보, 10-가장 보수)

소득층 기준 범주: 중소득층

괄호 안은 t 값.

*p<0.01, **p<0.05, ***p<0.1

II.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

-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의식의 괴리?

- 이하 강원택 외. 2014.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제 2장. 21세기북스.

<표 9>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평가에 의한 계층 구분²⁾

		객관적 조건			
		핵심 중산층	주변 중산층	하층	전체
주관적 평가	하위	19.0	20.5 29.2	26.5 44.8	53.0 100.0(234)
	중위	36.0	33.3 37.3	28.9 37.2	37.7 100.0(273)
	상위	45.1	48.5 33.5	30.2 18.1	21.3 100.0(235)
전체		100.0 (253)	100.0 (212)	100.0 (277)	742

<표 10> 계층별 정책 태도에 의한 이념

	계층	경제적 차원	사회적 차원	안보/반공 차원
객관적 조건	핵심 중산층	2.39	2.58	2.49
	주변 중산층	2.36	2.55	2.47
	하층	2.39	2.61	2.51
	분산분석	F=0.3 p=0.77	F=1.4 p=0.26	F=0.7 p=0.49
주관적 평가	상위	2.38	2.50	2.42
	중위	2.38	2.63	2.51
	하위	2.37	2.57	2.57
	분산분석	F=0.1 p=0.89	F=7.2 p<0.01	F=13.2 p<0.00

1- 가장 진보적, 4- 가장 보수적

2) 객관적 기준에 의한 중산층 구분은 가구주의 계급적(직업적) 지위, 가구소득, 주택소유 여부, 그리고 본인의 교육 정도 등 네 가지 기준을 사용

<표 11> 역대 대통령에 대한 계층별 평가 (가장 잘한 대통령)

구분	계층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기타	합 (n)	교차분석
객관적 조건	핵심 중산층	51.8	18.6	22.9	6.7	100.0 (253)	$\chi^2= 6.8$ $p=0.34$
	주변 중산층	50.0	15.9	27.4	6.7	100.0 (208)	
	하층	59.6	14.8	20.2	5.4	100.0 (277)	
주관적 평가	상위	48.4	17.4	28.5	5.7	100.0 (316)	$\chi^2= 16.5$ $p<0.05$
	중위	56.3	12.0	26.2	5.6	100.0 (359)	
	하위	58.7	16.8	17.7	6.8	100.0 (322)	

기타: 이승만, 전두환, 김영삼, 이명박

<표 12>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평가

	계층	민주주의 평가
객관적 조건	핵심 중산층	5.45
	주변 중산층	5.43
	하층	5.51
	분산분석	F=0.1 p=0.9
주관적 평가	상위	5.81
	중위	5.48
	하위	5.26
	분산분석	F=7.4 p<0.01

1(부정적)---10(긍정적)

<표 13> 주요 기관에 대한 신뢰도

	객관적 조건				주관적 평가			
	핵심 중산층	주변 중산층	하층	분산 분석	상위	중위	하위	분산 분석
대통령	55.8	58.0	57.9	-	59.2	58.7	57.2	-
행정부	47.2	47.0	46.3	-	51.3	48.6	44.4	*
사법부	43.4	43.5	44.1	-	47.8	46.0	41.0	*
국회	30.0	31.1	29.8	-	36.7	30.0	28.7	*
언론	37.9	40.3	40.3	-	44.3	40.0	39.2	*
시민단체	45.9	46.9	44.1	-	51.4	45.7	44.0	*
군대	56.0	55.3	55.8	-	59.1	56.1	55.0	**
종교단체	45.3	47.2	44.2	-	53.2	45.7	43.0	*
노조	42.6	44.0	42.0	-	49.4	43.4	38.4	*
대기업	43.4	44.3	43.5	-	49.2	45.4	40.0	*

*p<0.01 **p<0.05. - : 통계적 유의미성 없음.

0점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50점 중간, 100점 매우 신뢰한다.

<표 14> 사회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계층별 인식

	객관적 조건				주관적 평가			
	핵심 중산층	주변 중산층	하층	분산 분석	상위	중위	하위	분산 분석
세대	2.50	2.55	2.50	-	2.63	2.54	2.46	**
영호남	2.39	2.40	2.39	-	2.55	2.51	2.32	*
빈부	2.07	2.07	2.08	-	2.18	2.19	1.91	*
서울-지방	2.51	2.46	2.46	-	2.54	2.56	2.38	**
학력	2.34	2.35	2.35	-	2.44	2.44	2.26	**
남녀	2.89	2.91	2.79	-	2.89	2.93	2.83	-
노사	2.11	2.13	2.04	-	2.18	2.14	1.96	*
여야	1.73	1.71	1.70	-	1.84	1.77	1.62	*
대-중소기업	2.09	2.07	2.02	-	2.14	2.16	1.93	*

*p<0.01 **p<0.05. - : 통계적 유의미성 없음.

1-매우 갈등이 심하다, 3-보통, 5-갈등이 전혀 없다.

<표 15> 경제 정책에 대한 계층별 태도

	객관적 조건				주관적 평가			
	핵심 중산층	주변 중산층	하층	분산 분석	상위	중위	하위	분산 분석
정부개입	3.25	3.29	3.32	p=0.67	3.23	3.25	3.42	p<0.05
재벌규제	3.68	3.66	3.65	p=0.95	3.62	3.62	3.82	p<0.01
노조 자체	3.34	3.26	3.27	p=0.57	3.29	3.32	3.36	p=0.67

1 매우 반대, 3 그저 그렇다 5 매우 찬성

- 주관적 계층: 경제문제에도 진보적

<표 16> 가장 시급하게 해소해야 할 사회적 갈등

	객관적 조건			주관적 평가		
	핵심 중산층	주변 중산층	하층	상위	중위	하위
지역 갈등	8.7	10.9	12.6	13.5	12.4	8.0
이념 대립	36.4	30.3	33.1	30.8	31.7	33.6
세대 갈등	11.5	15.2	14.7	16.0	15.7	10.2
계층 갈등	26.3	31.8	27.7	<u>23.9</u>	<u>29.5</u>	<u>33.6</u>
수도권-지방격차	14.6	8.1	9.7	13.5	9.4	11.4
기타	2.0	3.8	2.2	2.2	1.4	3.1
합계 (n)	100.0(253)	100.0(211)	100.0(278)	100.0(318)	100.0(363)	100.0(324)
카이제곱 검정	$\chi^2 = 12.6 \quad p=0.25$			$\chi^2 = 20.5 \quad p<0.5$		

<표 17> 2012년 대선에서의 계층별 투표 패턴

구분	계층	박근혜	문재인	합 (n)	카이제곱
객관적 조건	핵심 중산층	58.4	41.6	100.0 (214)	$\chi^2 = 4.7$ $p < 0.1$
	주변 중산층	57.2	42.8	100.0 (173)	
	하층	66.7	33.3	100.0 (228)	
주관적 평가	상위	59.8	40.2	100.0 (271)	$\chi^2 = 1.8$ $p = 0.42$
	중위	65.2	34.8	100.0 (296)	
	하위	63.1	36.9	100.0 (256)	

- 주관적 계층의 경우, “계급 배반 투표” 현상 분명치 않음.

III. 요약

- 아직 강하지는 않지만 계층 별 정치의식의 차이 확인
- 연령 변수 제거하면 ‘계급 배반 투표’ 영향 약화
- 주관적 계층 의식별 분명한 차이
 - 하층: 정치적 불만 높고, 정당 정치 만족감 낮다
 - 주관적 계층인 경우 계급 배반 투표 현상 분명치 않다.

- 계급정합적인 경제 정책에 대한 태도 확인

○ “적어도 주관적 평가에 의한 구분의 경우, 계층이라는 변인은 정치적인 갈등으로 구현될 수 있는 상당한 잠재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계급 정합적인’ 태도가 주관적 평가에 의한 계층 구분에서는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그러한 계층적 특성이 정치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은 까닭은 그것이 기존 정당들을 통해 효과적으로 동원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계층별로 상이한 정치적 시각이나 요구가 정당들을 통해 제대로 표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나라 정당 정치가 여전히 지역주의나 이념, 세대 등 기존의 주요 갈등을 통한 정치적 동원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머지않은 장래에 이러한 기존의 갈등 요인에 변화가 생겨나거나 혹은 계층과 관련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면 계층은 곧바로 정치적으로 동원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다만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조건보다 주관적인 계층 소속감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정치적으로 지지자들을 규정하고 조직해 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